

민주지도부, 이재명 체포안 '이탈표' 단속... "등에 칼 꽂아서야"

박찬대 "의리 없는 정당을 지켜줄 당원 없어" 정청래 "단결 투쟁이 제1 덕목이고 무기일 것" 서은숙 "정치적 이익 계산하면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이 대표의 등에 칼을 꽂아서 안 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려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을 빙자한 사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계속되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은 법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탄압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라는 공격에 시달렸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 보수언론의 십자포화 견뎌야 했다"며

"심지어 불의한 권력은 논두렁 시계를 조작해 내며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다. 그 당시에도 검찰과 보수언론에 동조하며 돌을 던지던 이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망정 뒤통수에 돌맹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나. 의리 없는 정당을 지켜줄 당원은 없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폭거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이,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당 대표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엄치로 표를 달라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권 폭정에 일치단결해 싸울 때 민주당에 미래가 있다.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할 때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르면 21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에 힘을 실는 발언이다. 일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의 '이탈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된다.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단식투쟁 21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당원으로 부결을 못 아우두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 듯한 발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전 지구인이 단결 투쟁해야 하듯이 야당 파괴 공작으로 흥기를 들이대면 똘똘 뭉쳐 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선택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나라 지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야당 분열, 정적 제거에는 단결 투쟁이 제1 덕목이고 무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내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단결하자"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명백한 야당 탄압, 정적

탄압 앞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 계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원과 국민에게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분열로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단결로 전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도부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하지 않았다.

서은숙기자

이낙연, 목포대서 한국 생존 외교정책 특강



박능후(왼쪽부터)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립목포대에서 외교정책 특강에 나선다.

목포대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목포대 70주년 기념관경강아카데미홀에서 학

생, 교직원 및 지역민을 상대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남(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현 국제정세에 대해 "남북 간에 어렵게 조성됐던 대화의 기류가 무너지고 이제는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토론회 축사에서 "새 국방장관 후보자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자고 한다.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겨냥해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는 이 정부에 국민들의 지혜로 고삐를 채워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윤, 세계 정상 만나 "여러분의 미래, 한국이 설명할 수 있어"

대통령실 "부산, 한국 성장의 땃줄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까지 총 18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하며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EXPO)'의 부산 유치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개발도상국 정상에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소개하며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들 국가도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플랫폼이 바로 부산 엑스포라는 뜻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며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 되는 부산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

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드리고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각국 정상에 설명하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

랫폼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땃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강조하며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부산은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의 상징이라고도 밝혔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